

2022년 09월 18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2편 1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71(통419)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8장 1~7절 (구약p.768)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3.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4.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말씀선포 / 빌닷의 잘못된 관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며,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라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우리의 삶이 더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말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욥을 공격하는 빌닷의 논리 속에는 합당하지 않고 잘못된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도 빌닷과 같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하는 잘못된 관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버려야 하는 잘못된

관점은 무엇입니까?

1. 모든 문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입니다.

- 욥의 이야기를 들으며 빌닷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지만, 인간은 언제나 불의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따라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빌닷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주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러한 욥의 주장에 화가 나 그를 정죄하면서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공격했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빌닷은 자신의 확신에 근거해 욥의 무죄 주장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를 정죄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고난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 죄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를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고난당할 때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며, 이것은 오만하며 교만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 하였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먼저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잘못된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인과법칙은 절대적이라는 관점입니다.

- 빌닷은 욥의 자녀들도 정죄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빌닷은 욥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습니다. 되어진 결과를 보며 이 모든 것을 추측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일시에 압사당한 것이 틀림없이 그들의 죄값이라고 공개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굽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범죄하지 않은 자를 그렇게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자녀들에 대한 것을 암시적으로 지적했지만, 빌닷은 공개적으로 단정하여 말함을 통하여 욥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참으로 빌닷은 욥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인 자녀들의 죽음까지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과법칙의 관점으로 판단한 것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씨앗은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분명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정죄 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태도요 자신의 오만과 교만으로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양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엄격하고 완고한 분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긍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따뜻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도 위로를 얻게 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더욱 감사하며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자매에게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고착화된 지식과 생각으로 확신하며, 판단하고, 적용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오만이며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만 달란트 빛진 자를 탕감해 준 어떤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만 달란트 빛진 자는 임금의 자비로 그 빚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 데나리온 빛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결국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는 자비로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빌닷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과 판단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90(통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 폐 회 / 주기도문